

[TV]

TV 10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칸 영화제 60회 성대한 잔치 준비

세계 유명 영화감독 35인 참가... 한국 작품 '밀양' '숨' 경쟁부문 진출



장편 경쟁부문에 초청된 이창동 감독의 '밀양'.

칸 국제영화제가 올해로 60회를 맞았다. 1946년에 시작된 뒤 중간에 두 번(1948년, 1950년) 열리지 못해 올해가 60회째다.

우선 60회를 맞아 기념 이벤트로 옴니버스 영화 '각자에게 자신의 영화를 (To Each His Own Cinema)'이 선보인다.

올해는 쿠엔틴 타란티노·에미르 쿠스투리차·구스 반 산트·왕자웨이 등 거장들과 다수의 젊은 신진 감독들이 경쟁 및 비경쟁부문에 고루 참가하는 특징을 띠고 있다.

올해는 쿠엔틴 타란티노·에미르 쿠스투리차·구스 반 산트·왕자웨이 등 거장들과 다수의 젊은 신진 감독들이 경쟁 및 비경쟁부문에 고루 참가하는 특징을 띠고 있다.

미국 컬럼비아 고교 총기 난사를 다룬 영화 '엘리펀트(Elephant)'를 만들었던 반 산트 감독은 이번엔 스케이트보드를 타는 10대가 우

연히 경비를 살해하는 이야기인 '패러노이드 공원(Paranoid Park)'을 선보인다.

또 이란의 마르자네 사트라피, 터키계 독일인 파트리크 아킨, 루마니아의 크리스티안 문기우 등의 젊은 감독들이 작품들을 내놓았다.

장편 경쟁부문에 초청된 이창동 감독의 '밀양'과 김기덕 감독의 '숨'이 장편경쟁부문에 초청됐다.

"안방 CF에도 우먼파워"

현신적인 주부모델 퇴조... 성역할 구분 감소

남편과 아이들은 식탁에 앉아 있고 주부는 송파구 신천동 한국광고문화회관에서

는 가족을 위해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개화한 제4회 'KOBACO 심포지엄'에서 한

TV 광고는 요즘 보기 힘들다. 신대 정기현 교수는 이러한 내용의 'TV 광고'에 대해 '프로 엄마 혹은 유아와 어머니

를 나타내는 TV 광고는 크게 늘고 있다. 정기현 교수는 1970년대부터 지난해까지 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가 9일 서

잘 나타내고 있는 가정용품과 가전제품, 식품 등 3개 군의 광고 488편을 분석한 결과

전통적 가치관은 감소하고 있으며 현대적 가치관은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논문에 따르면 전통적 가치관은 1970년대에 86.1%의 비중을 차지했으나 1980년대에 76.7%, 1990년대 67.8%, 2000년대 29.1%

등으로 뚜렷한 감소세를 보였다. 반면 현대적 가치관의 비중은 1970년대 11.1%에 불과했지만 1980년대 23.3%,

1990년대 30.2%, 2000년대 68.7% 등으로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하고 있다.

Advertisement for '국제보청기' (National Hearing Aid) with contact information and a logo.

케이블·위성TV 10일

Large table listing TV channels (YTN, MBN, KTV, SBS, etc.) and their respective programs for the day of May 10th.